

# 오피니언

## 월/요/광/장

김 용 의



살날 연휴를 이용하여 부안군에 있는 위도를 다녀왔다. 해마다 정월 초사흘이면 위도 대리에서 열리는 원당제라는 민속행사를 보기 위해서이다. 때마침 휘몰아친 서해안 한파로 추위에 떨어야했다. 대리의 원당제는 원당제보다도 '위도 락뽕놀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많이 알려졌다.

이 '위도 락뽕놀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82-다호로 지정된 유서 깊은 민속행사이다. 마을에서 가까운 당제봉 정상에 위치한 원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마지막에 락뽕 놀이를 벌여 마을을 정화하고, 마을을 지켜주는 데에 도움이 된다. 락뽕놀이를 벌여 마을을 정화하고, 마을을 지켜주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 날 전야제 행사의 불거리는 무엇보다도 달집태우기가 아니었나 싶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새해 소원을 적은 소원지를 달집에 걸어두고, 달집의 불길 이 높이 치솟는 것을 지켜보며 하늘 높이 걸린 달을 향해 신에게 소원을 빌었다. 이 순간은 신과 인간의 교류의 시간이며, 달집이 놓인 광장은 신과 인간의 합일의 공간이다.

## 그 많던 신들은 어디로 다 갔을까

아제를 보고 왔다. 잘 알려진 것처럼, 칠석 마을 고사음은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되어 있다. 제24회 서울올림픽 식육 공개행사에 초대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 날 전야제 행사의 불거리는 무엇보다도 달집태우기가 아니었나 싶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새해 소원을 적은 소원지를 달집에 걸어두고, 달집의 불길 이 높이 치솟는 것을 지켜보며 하늘 높이 걸린 달을 향해 신에게 소원을 빌었다. 이 순간은 신과 인간의 교류의 시간이며, 달집이 놓인 광장은 신과 인간의 합일의 공간이다.

간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신과 인간의 경건한 시간이다.

생각해보면, 일찍이 우리 조상들은 늘 신과 함께 살아왔다. 집안 공간만하더라도 터주신을 비롯하여 변소에는 측간신, 부엌에는 조왕신, 외양간에는 외양간신, 방에는 성주신을 모셨다. 집밖으로 나가면 마을의 공동우물에 우물신, 마을 어귀의 장승, 그리고 당산나무에는 당신 할아버지와 당신 할머니를 모셨다. 이들 신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떼어내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생활의 일부이자 생활 그 자체였다. 인생의례를 보더라도,

출생, 이레, 세이레, 돌, 생일, 성인식, 결혼, 환갑, 죽음으로 이어지는 일생을 통틀어 늘 신의 존재를 의식하며 신에게 감사하며 살아왔다.

우리 조상들은 이들 신과의 교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명의 소중함, 공동체 삶 속에서 인간에 대한 도리,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배우며 자랐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새마을운동으로 상징되는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했던 수많은 신들이 우리 곁을 떠나갔다. 아니 우리 스스로 그 신들을 떠나보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지

모르겠다. 중국이나 일본을 여행해본 사람이라면, 지금도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얼마나 신이 밀착되어 있는지를 느낄 수 있다.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우리는 '신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세기 들어 한국사회가 더욱 복잡해지고 공동체적 삶이 급속도로 해체되면서, 그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사회 병리현상이 매우 두드러졌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고 인간소외가 심각해졌다. 가족 사이의 대화단절, 학교폭력의 난무, 직장에서의 소통부재는 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크나큰 위기에 직면하였다.

근대 이전에 비해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이 각박해지고 불행해졌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혹시라도 그 원인이 '신을 잃어버린 시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그렇다면, 하루빨리 '잃어버린 신'을 되찾아야 할 것 같다. 물론 '잃어버린 신'을 되찾는 일은 기성종교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 경우의 신이란, 인간성 회복이자 생명사상이며 자연에 대한 외경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렇고, 그 많던 신들은 어디로 다 갔을까.

〈전남대 일어일문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법조칼럼



최지현

변호사에게 필요한 여러 덕목 중 하나가 '경청'의 자세이다. 그런데 경청의 자세는 실무를 떠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덕목이고 특히 상담으로 만난 부부관계에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해'의 자세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족이나 의뢰인 중에 부인이 제기한 이혼소장을 받고 자신도 이혼을 원하지만 아이들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오신 분이 있었다. 그러나 면담을 계속하다 보니 의뢰

인의 중심은 부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부인의 변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정과정에서 필자는 부인이 압수 후 우울증을 앓게 되었지만, 의뢰인은 부인이 우울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인은 계속하여 의뢰인에게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말했지만, 의뢰인은 귀담아듣지 않았던 것이었다. 참을 수 없는 변덕 또한 치료약의 부작용 중 하나였다.

부인은 의뢰인의 생활방식이며 자신을 대하는 태도 모두 맘에 들지 않고 개선의 시도조차 하지 않는데 이혼을 강경하게 원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의뢰인과 부인은 함께 부부상담을 한 달에 한 번씩 전문가에게 받아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 다름의 인정과 존중

으로 하여 소취화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결국, 앞의 부부의 문제는 서로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서로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고치려 했다는 점이다.

필자도 신혼 초 남편과 '당신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등으로 티격태격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남편이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주며 읽어보라고 하였다. 남편이 완전히 다른 행성에 서 왔으니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예를 들어 여자는 관심 받고 보살핌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여기며, 그래서 남자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에도 상대를 보살피고 챙겨준다. 하지만, 남자는 이럴 때 짜증이 나고

조종 당하는 느낌, 벗어나고 싶은 심정까지 든다. 남자가 받고 싶은 것은 신뢰이지 보살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가 상심하고 있을 때 문제의 중요성을 감소시켜 위로하려 하지만 여자는 이때 남자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다.

필자는 이 책을 읽어가던 중 처음 생일선물도 샀푸를 준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되었다. 사귀면서 처음 내 생일을 맞게 된 남편은 무슨 선물을 할지 모르겠다고 망설이며 빈손으로 내게 왔고, 나는 섭섭함에 남편에게 "슈퍼에서 샀푸라도 사 와야지, 빈손으로 온 거야?"라고 했다. 그랬더니 남편이 바로 슈퍼로 달려가 사온 것이 샀푸였다. 당시에는 헛웃음만 나왔지만 말대로 한 것이라 필자도 할 말이 없었다.

이제 필자는 남편과 대화를 할 때는 끝이 끝 대로 듣는 남편을 위해 들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얘기한다. 그 뒤로 서로 감정 표현이 명쾌해져서 다툼은 없어졌다. 그러나 로멘틱하지는 않아 아쉬움은 있다.

〈변호사〉

## 기고



마재운

산업사회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편익을 증진시켰다. 하지만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생활형태가 다양하게 변화되면서 사회적 안전 위협요소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안전한 삶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이러한 위협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계속의 안전도시 만들기'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전도시(Safe Community)'란 사고를 줄이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

## 세계속의 안전도시 광주 만들기

는 1989년 9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회 세계사고(Accident)와 손상(Injury) 예방 학술대회'에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증진사업을 'Safe Community'라 명명하면서 유래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최초로 스웨덴 린초핑(1989년)이 세계최초로 안전도시로 공인된 것을 시작으로 29개국 235개 도시가 있다. 국내는 경기도 수원시(2002년)를 비롯하여 5개 도시가 있다.

광주시도 2015년 하계 U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나아가 '세계속의 안전도시 광주'를 위해 2014년 6월까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명실상부한 '민주·인권·평화도시'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사고는 과학적인 접근에 의해 예측과 예방이 가능하다. 복구보다는 예방과 안전에

대한 투자가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주거시설 안전, 어린이·청소년 안전, 화재예방과 재난안전 등 11개 분야에 대한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안전도시 조례 제정 추진, 지역사회 안전도진단, 안전 모니터링사업 활성화, 지역사회 안전체계의 장 개설·운영 등 다양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안전도시 추진 시책과 발맞추어 소방관 서에서도 화재, 구조, 구급 등 본연의 업무 범주를 넘어, 이제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밀접히 결합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폭넓은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119미션의 다각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빛고을 안전체력 한마당' 등 다양한 안전 체험행사와 소외 이웃에 대한 찾아가는 안

전복지 서비스, 교육효과가 평생 지속되는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부(DE : Donation for Education)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고대응능력 배양과 안전한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는 것도 소방정책 다각화의 일환이다.

우리는 지금 세계속의 명품도시로 도약해가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이 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세계적인 환경 도시로 거듭나게 된 '도시환경협약(UEA) 광주정상회의' 등 오래전부터 서서히 시작된 보이지 않는 우리의 힘이 밀거름이 되어 국제적 일류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광주의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인 광주의 축제로 승화시키고 세계인의 기억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세계속의 안전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야 할 것이다. 〈광산소방서장〉

## 인스턴트 식품·흡연, 청소년 기흉 환자 증가 주범이다

폐에 구멍이 나서 숨쉬기가 곤란해 지는 병을 기흉이라고 한다. 기흉은 폐에 구멍이 뚫려 안에 있던 공기가 빠져 나가 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이다. 병의 증상으로는 갑자기 가슴 쪽이 찢릿찌릿하게 아프고 숨을 쉬기가 어려워지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병원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 요즘은 이 기흉 환자의 절반 이상이 10대와 20대 남자인데 그 원인은 놀랍게도 청소년들의 성장이 빨라진 게 주된 이유라는 것이다.

왜 청소년들의 성장이 빨라진 게 이런 질병을 가져오는 걸까.

학생들은 인스턴트 식품을 즐겨 먹는다. 햄버거, 치킨, 피자, 빵과 탄산 음료수 같은 걸 많이 먹다 보니 비만과 불균형적 과잉성장을 부르고 그것이 골격은 커지는데 폐 조직이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학생들의 체력검사 결과 덩치는 커졌는데 체력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하는 뉴스 보도가 가끔 나오는데, 이것도 인스턴트

식품이 주원인이라고 한다. 어쨌거나 약간의 외형적인 과잉성장을 장기 성장이 따라가지 못해 기흉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또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기흉에 걸릴 확률이 20배나 높다고 한다. 그것은 요즘 중학생 때부터 담배를 피워대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것과도 관계가 깊어 보인다. 그리고 기흉은 한 번 걸리면 재발할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하지만, 다행히도 제때 수술을 받으면 폐기능은 회복된다고는 한다.

앞으로 가정에서 청소년을 키우는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성장이나 흡연 여부 등을 제대로 파악해 혹시나 생길지도 모르는 이런 질병에 미리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유은규·광양시 횡질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 시설

## 유치 공들인 슬렌시스 위기 두고만 볼 건가

광주시가 공들여 유치한 하이테크 기업 슬렌시스(주)가 설립 1년여 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 매출이자를 갚지 못해 금융권 부실리스트에 올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가압류 절차를 진행중이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슬렌시스의 자금난은 심각한 수준인 것을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직원들이 광주고용노동청에 임금채널 진정을 냈고, 민사소송도 진행중이다. 국민은행은 최근 부실리스트에 올리고 자금 상황을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터치패드 원천기술을 보유한 슬렌시스는 지식경제부로부터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등이다. 이 경우의 신이란, 인간성 회복이자 생명사상이며 자연에 대한 외경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위기를 맞은 것은 초기 자본 없이 첨단기술만 믿고 사업을 벌인 데다 투자자들이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섣불리 나서지 않은 때문이라는 분석이

다. 여기에 광주시의 무관심도 한 몫 했다는 전언이다.

광주시는 애초 광·가전·자동차 등 광주 첨단산업에 터치기술을 적용하면 광주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고 슬렌시스 유치를 공을 들였다. 첨단산업 5100㎡ 부지를 무상 제공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후 투자자 유치 등 부수적인 지원에는 소홀했다는 얘기가. 기술력이 탄탄한 회사를 유치하는데 공을 들였으면 제품 생산, 판로까지 꼼꼼히 살펴 인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온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유망기업의 유치는 고용, 생산,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다. 회사 측의 노력이 우선돼야 하겠지만 광주시는 지급부타라도 시급히 지원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며, 업체의 잘못은 무엇인가를 면밀히 따져 사안별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경제 활로 모색은 물론 다른 유망기업 유치에도 동력을 실을 수 있을 것이다.

## 위기의 광주시 '대오각성'만이 해법이다

광주시가 최악의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총인시설 선정과정에서 잇달아 공무원 비리가 불거지는가 하면 강연대 시장 부인의 계좌에서 뭇치돈이 발견되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주 1000억 원대 총인시설 비리 의혹과 관련,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A(4급)씨 등 시기관 2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시공사인 임원을 구속한 데 이어 호남지사 책임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업체 측이 심의위원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 신병처리 규모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의문이다.

게다가 강 시장 부인의 계좌에서 12억여 원의 뭇치돈이 발견되면서 광주시의 체면이 말아 아니다. 강 시장 관련 자금 흐름을 내사 중인 검찰이 "불투명한 자금거래로 인해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돈을 보유하거나 쓰인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여차피 강 시장을 겨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강 시장 측의 주장대로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흘러나온 돈이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비과 공직자윤리법의 저촉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강 시장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시장이 법을 위반하면서 시장을 운영한다는 게 영(승)이 설리 만무하며, 행정 불신에 대한 역풍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강 시장은 뭇치돈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사과 표명을 해야 한다. 검찰도 총인 시설과 강 시장 관련 계좌에 대한 전모를 밝혀내야 하며, 수사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행정적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광주시가 취할 조치는 대오각성과 함께 분위기를 일신하는 일이다.

## 無等鼓

선거를 앞둔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말은 '물갈이'일 것이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단어 자체가 언뜻 매체에 오르내리는 것에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인다. 광주지역 한 의원은 "여론조사 때마다 지역구 현역의원 지지 여부를 먼저 묻는데 제발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 문항이 전체 후보지지도 조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인적쇄신을 의미하는 '물갈이'가 언제부터 정치 구호로 등장했을까. 지난 1956년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신익희·장면 정부통령 입후보자가 자유당 이승만 정권에 맞서 내세운 '못살겠다 갈아보자'가 시발점으로 여겨진다.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신문에 '공천 물갈이'라는 제목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5대 총선을 앞둔 1995년께다. 2000년에는 전국 4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가 부처질한 후보자에 대한 공천반대·낙선운동을 전개했다. '바퀴' 열풍 속에 86명의 낙선 대

상자 가운데 59명(68.6%)이 떨어졌다. 이후 '물갈이론'은 선거 때마다 최대 이슈가 됐다. 지난 16~18대 총선에서 광주 국회의원 교체율은 평균 68%, 전남은 52%대를 기록했다. 이번 총선에 대한 여론조사 때마다 지역구에서도 국민의 절반 가량이 '현역 의원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 답했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도 비슷한 모양이다. 최근 윌스트리트 저널과 NBC 뉴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등록 유권자의 56%가 다음 선거에서 상하 양원 의원 전원을 낙선시키고 싶다고 대답했다. 현역 의원들은 역을 하다는 입장이다. 마녀사냥식 물갈이로는



능력 있고 참신한 정치신인을 기르기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격'이 될 것이라 할뿐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자신의 의정활동부터 겸허히 되돌아봐야 한다. 민생정책과 입법활동, 공약이행 면에서 자신 있게 '다시 표를 달라'고 요구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말이다.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康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가)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교미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신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